

문화상품 공급에 관한 고찰

이은정*, 황경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e-mail : ejlee@jejunu.ac.kr

A Study of the Supply for Culture products

Eun-Jeong Lee*, Kyung-Soo Hwang*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공급하는 문화상품 공급의 특징을 알아보고 그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급하는 문화상품을 정리하고 각 지방정부의 문화관련 기관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통해 문화상품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할 것이다.

1. 서론

문화행정의 영역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정홍익(1997, 재인용)은 문화의 발전과 진작이라는 영역 속에 예술인의 양성, 훈련, 예술활동에 대한 직·간접 지원, 문화예술의 보급 촉진, 시민 문화활동 지원이라는 세부영역을 제시하였고, 정철현(2004)은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 생활의 문화화, 문화교육을 핵심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일본의 이케가미 준(1999, 재인용)은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장려/지원, 문화의 보급과 일반인의 문화활동에 대한 참가기회 확충, 지역문화진흥, 문화분야의 인재양성과 교육,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문화의 국제교류와 국제협력, 문화시설 및 문화에 관한 제도 등의 기반 정비 등을 지적하였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정부 역시 문화행정의 중심 주체가 되고 있다. 지방정부 수준에서 문화·예술 창작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창작의 기회를 확대하며, 소비자와 생산자간 만남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유산 보호와 함께 대외적 소개 등 교류에도 힘쓰고 있다(이케가미 준, 1999, 재인용).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공급하는 문화상품의 공급은 상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급하는 문화상품을 정리하고 각 지방정부에 속해 있는 문화관련 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문화상품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품의 가격결정시 주요 판단 근거들을 분석할 것이다.

2. 문화상품의 공급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진반적으로 문화상품의 가격은 그 경제적 가치를 한정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데이비드 트로스비, 2004). 왜냐하면 대부분의 재화 및 서비스와 달리 문화상품 및 서비스는 어느 정도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은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로 활용되어 문화시설이 지역, 국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시장가격과 산출량, 즉 극장 매표소의 수입과 박물관 갤러리의 입장료 수입 등을 참조하여 추정하여 왔다. 워더스와 저자는 초기의 연구(1983)에서 호주의 소비자가 1983년 예술의 비시장적 편익의 평균적 경제적 가치가 공공부분의 예술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세금을 초과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데이비드 트로스비, 2004 재인용).

게츠너(2002)는 오스트리아의 1967년부터 1998년까지 공공문화지출의 시계열분석을 통해 공공무노하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GDP와 관련하여 공공문화지출은 지속적 성장추세를 보였고, 공공문화지출의 성장에 중요한 요인은 GDP의 성장이었고, 다음으로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의 문화예술에 대한 성장, 문화부문의 비용의 증가 등이었다.

문화의 공급에 대한 특징으로 김정수(2006)는 첫째 문화에 대한 수요가 다양하므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처로 공급을 다양화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오페라, 연극, 발레, 음악 등 실연예술은 현대작품보다 옛 작품을 공연하는 경우가 훨씬 많게 되는데

이 역시 수요의 안정적 예측을 위한 공급자의 대응 방식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의 대상은 정부에서 공급하는 문화상품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문화상품은 문화란 개념이 다의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그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상품을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연예술로 한정짓고자 한다.

지역에서 공연예술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문예회관일 것이다. 문예회관은 지역 내 문화활동, 시민활동, 여가활동에도 활용되는 지역 내 문화활동의 중심복합공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예회관은 1980년대부터 정부에서 '1 시·도 및 시·군·구 1문예회관'이라는 목표로 전국에 건립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현재도 계속해서 건립되고 있다. 문예회관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동등한 수준의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공공성에 비중을 두어 각 지자체가 주도하고 국가로부터 일정부분 지원 받아 건립된 공연장, 전시장 등 복합시설로 구성되어 있다(최보미, 2006).

문예회관의 운영에 있어 보다 많은 지역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중요하다. 제주 역시 적극적 마케팅 전략과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향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화공급의 입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본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한 결과, 지역문예회관의 공연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가격결정' 문제라 하였다. 공연 장르의 다양성, 규모, 수요자로서의 제주도민의 성향, 체계화된 가격결정 시스템의 부재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문화진흥본부의 도움을 받아 중앙 및 지방의 42개 기관의 문화공연 관리들을 대상으로 공연 요금 및 작품선정에 관한 의견을 설문하였다. 기간은 2009년 5월부터 6월까지였고, 66개의 유효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3. 문화상품의 공급 실태 및 정책 분석

3.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품 현황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회관의 최근 운영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유·무료 공연 실적을 정리하였고, 그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치한 유료공연 실적은 2008년도 69회, 2009년 9월말 현재 42회 정도이다. 그 중

2008년도 공연은 국악을 포함한 음악 공연이 56회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연극공연이 11회, 무용이 2회였다. 2009년 실적을 보면 음악 공연이 25회, 연극공연이 15회, 무용이 2회로 연극공연이 비교적 많아졌다. 이는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본부의 "우수공연작품참여" 사업 실행으로 우수한 도외 공연이 비교적 자세한 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 형태가 음악, 연극, 무용 등으로 매우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공급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공연유치 실적
(괄호 안 실적은 문화진흥본부 혹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단체 주관)

구 분	2008년	2009년 9월말현재
음악공연	56(6)	25(6)
연극공연 (뮤지컬포함)	11(5)	15(3)
무 용	2(1)	2(1)
합 계	69(12)	42(10)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유치 공연의 요금 수준을 살펴보았는데, 2008년 음악공연의 경우 민간 주최의 공연은 3000원~44000원으로 다양했던 반면 문화진흥본부 혹은 제주자치도 소속단체 주관인 경우 5000원으로 일정하였다. 이는 2009년 9월 말 현재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극공연의 경우 2008년 민간단체 주최의 경우 10000원~50000원으로 문화진흥본부 주관의 경우 7000원~20000원에 비해 가격수준이 높았다. 이는 2009년 현재에도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표 2>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유치 공연 요금현황
(괄호 안 실적은 문화진흥본부 혹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단체 주관. 좌석에 따른 차별가격 적용안함)

구 분	2008년	2009년 9월말현재
음악공연	3000원~44000원 (5000원)	5000원~30000원 (5000원)
연극공연 (뮤지컬포함)	10000원~50000원 (7000원~20000원)	10000원~55000원 (15000원~30000원)
무 용	30000원(5000원)	30000원(5000원)

다음은 중앙 및 지방의 42개 기관의 문화공연관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연요금 및 작품선정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응답자의 78.8%는 지방 공무원, 나머지 21.2%는 중앙 기관의 공무원이었고, 조사기관의 2008년도 공연유치실적을 살펴보니

3회, 6회 등의 소규모 실적부터 80회, 150회, 270회 등 대규모 유치실적을 가진 기관도 있었다. 그리고 2008년도 공연 수지현황을 보니, 적자운영을 한 기관이 응답기관 전체의 95.1%나 차지하였고, 수지균형을 이룬 기관이 4.9%에 그쳤다.

다음 <표 3>은 공연작품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작품성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확보된 예산, 흥행성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공연작품을 선정하는 기준

기준	빈도	비율(%)
작품성	33	50.0
흥행성	13	19.7
확보된 예산	20	30.3
합 계	66	100.0

다음은 중앙과 지방에 소속된 기관별 2008년도 공연유치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40회 이상의 대규모 실적을 갖고 있는 것은 중앙에 소속된 기관이었고, 20회 미만의 소규모 실적을 갖고 있는 것은 지방에 소속된 기관들이었다.

<표 4> 소속기관별 2008년도 공연유치실적

구 분	지방 소속	중앙 소속
1-9회	19(41.3)	0
10-13회	13(28.3)	1(7.7)
14-19회	5(10.9)	3(23.1)
20-25회	5(10.9)	0
40-50회	1(2.2)	3(23.1)
60-80회	2(4.3)	4(30.8)
150회 이상	1(2.2)	2(15.4)
합 계	46(100.0)	13(100.0)

p<.01

3.2. 문화상품의 공급에 미치는 요인 분석

문화상품의 공급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사전에 심층면접을 한 자료를 토대로 “수익극대화”, “관중동원”, “수지균형”, “지역 내 다른 공연과의 균형”, “동일작품의 다른 지방 공연요금”을 설문문항으로 문화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설문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지방에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 응답자 중 “관중동원”이 50.5%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한 것으로 보였다.

<표 5> 요금결정시 주요 판단 근거

판단근거	빈도	비율(%)
수익극대화	2	3.0
관중동원	40	60.6
수지균형	13	19.7
지역 내 다른 공연과의 균형	8	12.1
동일 작품의 다른 지방공연요금	3	4.5
합 계	66	100.0

<표 6> 소속기관별 요금결정시 주요 판단 근거

구 분	지방 소속	중앙 소속
수익극대화	2(3.8)	0
관중동원	39(75.0)	1(7.1)
수지균형	5(9.6)	8(57.1)
지역내 다른공연과의 균형	6(11.5)	2(14.3)
동일작품의 다른 지방공연요금	0	3(21.4)
합 계	52(100.0)	14(100.0)

p<.01

<표 7> 공연실적별 요금결정 주요 판단근거

구 분	수익 극대화	관중 동원	수지 균형	지역내다른 공연과의균형	동일작품다른지방 공연요금	합계
1-9회	1(5.3)	14(73.7)	1(5.3)	3(15.8)	-	19
10-13회	-	10(71.4)	2(14.3)	2(14.3)	-	14
14-19회	-	4(50.0)	3(37.5)	1(12.5)	-	8
20-25회	-	4(80.0)	1(20.0)	-	-	5
40-50회	-	1(25.0)	1(25.0)	1(25.0)	1(25.0)	4
60-80회	-	2(33.3)	1(16.7)	1(16.7)	2(33.3)	6
150회 이상	-	-	3(100)	-	-	3
합 계	1(1.7)	35(59.3)	12(20.3)	8(13.6)	3(5.1)	59(100)

p<.05

공연요금을 결정하는 경로를 살펴보았는데 담당자 및 내부결재권자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90.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내 공무원과 심층면접한 결과와 같이 생각하여 보면, 공연의 실질적 비용-편익보다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내부에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8> 공연요금 결정경로

결정경로	빈도	비율(%)
담당자의견	36	54.5
내부 결재권자 의견	24	36.4
외부 공연기획사 의견	3	4.5
기 타	3	4.5
합 계	66	100.0

<표 9> 소속기관별 공연요금 결정경로

구분	지방소속	중앙소속
담당자의견	26(50.0)	10(71.4)
내부 결재권자 의견	22(42.3)	2(14.3)
외부 공연기획사 의견	1(1.9)	2(14.3)
기타	3(5.8)	0
합계	52(100.0)	14(100.0)

p<.05

4. 결론

공연예술의 공공재적 성격과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경제적 효과 등의 특성이 있다(조은미, 2000). 그리고 공연예술의 생산과 생산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발전에 따른 생산비 절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일반 재화 및 서비스와는 달리 문화상품은 정부에서 일정 정도를 공급해야 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정부가 공급하는 문화상품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중앙, 지방에 소속된 기관의 문화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분석결과는 지방에 소속된 기관이 중앙에 소속된 기관보다 공연유치 실적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 소속기관이 작품을 선정할 때 “수지균형” 보다는 “관중동원” 측면에서 결정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실제적 공연 가격보다 내부 담당자들의 의견, 결재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가격결정 메커니즘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에서 공급하는 문화상품의 공급에 관한 특성을 연구한 첫 단계에 불과하여 많은 부분에서 보완, 발전이 필요하다 하겠다. 문화상품의 공급을 알아보는 데에 있어 공연별 입장료 구매 상황, 입장권 판매 정도, 입장권과 구매자별 관계 등 보다 깊이 자료가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공급하는 문화상품에 대한 수요 부분도 실제 공연 관람객을 대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향후 진행할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주요참고문헌

[1] 김정수, “문화행정론”, 집문당, 2006.
 [2] 데이비드 트로스비, 성제환 역, 문화경제학, 한울아카데미, 2004
 [3] 이대희, “문화산업론”, 대영문화사, 9월, 2001.

[4] 정철현, 문화정책론, 서울경제경영, 2004.
 [5] 정홍익·이종열·박광국·주효진, “문화행정론”, 대영문화사, 8월, 2008.
 [6] 조은미, “공연예술의 경제적 이해”, 무용학회논문집, 28, 299-316, 2000.
 [7] 최보미, “문예회관 관객개발을 위한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8] 한옥근, “지역공연 예술의 나아갈 방향”, 문화연구, 8, 45-54, 2003.
 [9] Michael Getzner(2002), “Determinants of Public Cultural Expenditures: An Exploratory Time Series Analysis for Austria”,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6.
 [10] 제주특별자치도 문예진흥본부 내부자료(2009).